

동사와 서술어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안희제*

| | |
|--------------------------------|---------------------------|
| I. 서론 | V. 서술어의 역할: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 |
| II. 서술어와 동사를 대응시키는 견해의 문제점 | VI. 결론 |
| III. 보조용언 구문 | <참고문헌> |
| IV. 명사 서술어 구문 및 ‘명사#용언’ 서술어 구문 | <국문요약> |

I. 서론

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문장 분석 방법론은, 1) 통사구조와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생성문법의 문장 분석 방법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문장의 핵심성분은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에서 ‘동사’라는 범주적 단위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2) 이에 따라 ‘문장’이라는 단위도 동사의 최대투사인 ‘동사구(VP)’로 파악되고 있다. 또 생성문

* 인하대학교 강사, 국어학 전공(17monkey@hanmail.net).

- 1) 이것은 소위 학교문법에서의 ‘문장성분분석’을 의미한다. 임흥빈·이홍식 외(2002)에서는 ‘문장성분의 성격’ 항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와 같은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진 단위를 말한다. …라. 본고에서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문장성분은 해석범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임흥빈·이홍식(외), 『한국어 구문 분석 방법론』(한국문화사, 2002), 217~218쪽.
- 2) 생성문법의 ‘동사’는 때때로 형용사, ‘이다’까지를 포함한 학교문법의 ‘용언’을 의미하기도 한다. I 장에서는 전통문법과 생성문법과의 비교를 위해 ‘용언’의 의미로 ‘동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법의 방법론에서는 ‘주어/목적어’라는 기능적 단위들도, 통사구조와 범주에 의해, 각각 ‘동사의 지정어/보충어’ 위치에 위치한 명사구(NP)’로 설명되고 있다.

위의 예들은 문장 내 기능에 의해 규정되던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전통적인 단위들이, 통사구조상의 위치나 단위들의 범주에 의해 재규정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생성문법이 엄밀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여러 문법 현상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장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는 앞에서 언급된 몇몇 개념들 중,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가 ‘동사’라는 범주적 단위로 이해되고 있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술어와 동사의 외연 사이에는 서로 대응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술어를 단순히 동사로 이해하거나, 더 나아가 문장을 동사구(내지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에 의한 IP, CP 등)로 이해하는 태도도 재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서술어와 동사를 대응시키는 견해의 문제점

다음 (1)은 이홍식(1996), 임흥빈·이홍식(외)(2002)에서 인용한 것이다.

(1)

- 가.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용언으로 이루어진다. 동사나 형용사 등이 서술어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서술어를 확인하는 것은 이들 용언의 확인을 통해 쉽게 이루어진다.³⁾
- 나. 서술어는 흔히 용언으로 이루어진다.⁴⁾

위 (1)에서는 서술어를 ‘용언’으로 보고 있다. 용언은 전통문법의 품사분류체계에서 ‘동사/형용사’에 해당한다. 품사가 부여되는 단위는 단어에 한정되기 때문에,

3)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177~178쪽.

4) 임흥빈·이홍식(외), 앞의 책, 222쪽.

(1)의 설명은 ‘서술어’가 품사상 ‘동사/형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어’에 한정된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1)은 ‘서술어=1단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술어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논의에서 문제 시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2)
 - ㄱ. ‘서술어≠1단어’인 경우
 - ㄴ. ‘서술어≠동사/형용사’인 경우

1. ‘서술어≠1단어’인 경우

다음 (3)~(4)는 이홍식(1996), 이호승(2003)에서 ‘복합 서술어’라는 단위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복합 서술어’라는 용어는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3)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용언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술어 중에는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들도 있고, 용언이 체언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들도 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복합 서술어(complex predicate)라고 부른다.⁵⁾
- (4) [명사+조사+동사] 복합서술어란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면서 동시에 문장 구성에서는 한 단위를 이루어 서술어로 기능하고 전체 구성과 구성 요소들이 의미적 관련성을 맺는 형태/통사적 구성이다.⁶⁾

이와 같은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는 통사구조에서 어휘범주 V(또는 V에 준하는 어휘범주)로 분석되기도 한다. 다음 (5)는 ‘복합 서술어’를 이루는 통사적 구성을 단어에 준하는 어휘적 단위(CP-V)로 분석한 예이고, (6)은 통사적 단위의 서술어가 어휘적 단위로 재분석(V→V)된다고 분석한 예이다.

5) 이홍식, 앞의 논문, 196쪽.
 6) 이호승, 『국어 복합서술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57쪽.

- (5) 구적 단위를 단어에 준하는 어휘적 단위(CP-V)로 분석한 경우

[청중에게 [[연설을]_{OKP} [하다]_V]_{CP-V}]_{CP-V}
 [당국에서 [[허가가]_{NKP} [나다]_V]_{CP-V}]_{CP-V}
 ※CP-V는 복합서술어-동사(Complex Predicate-Verb)⁷⁾

- (6) 구적 단위가 어휘적 단위로 재분석된다고 분석한 경우

ㄱ. [[[연설을]_{OKP} [하다]_V]_V]⁸⁾
 ㄴ. 목적어와 동사가 다시 동사로 재분석되어 또 다른 목적어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⁹⁾
 수학을 공부를 하다.
 유행가를 노래를 부르다.
 귀가를 설득을 하다.¹⁰⁾

그러나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에 대한 위 (3)~(6)의 설명을 주어/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목적어는 그것이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일지라도, ① ‘복합 주어/복합 목적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으며,¹¹⁾ ② 통사구조에서도 그저 NP로만 분석될 뿐 N에 준하는 어휘범주로 분석하거나 어휘범주 N으로 재분석된다고 보

7) 위의 논문, 123~124쪽.
 8) 임흥빈,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태학사, 2001), 733쪽.
 9) 원래는 ‘목적어의 성격’ 항에 있던 내용이라서 ‘수학을, 유행가를, 귀가를’에 밑줄이 있던 것인데, 본고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10) 임흥빈·이홍식(외), 앞의 책, 227쪽.
 11) 주어/목적어 등으로 기능하는 명사구 내의 관형어(관형사, 관형사절 등)는, 주어/목적어 등 이른바 주성분이 분석된 다음 그 안에서 2차적으로 분석되는 단위이다. 즉 모든 문장성분이 단어(내지는 어절) 단위로 분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남기심·고영근(1993)에서 주어(밑줄 친 성분)의 예를 든 것인데 이것은 ㄱ이 아니라 ㄴ으로 분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ㄴ과 같이 분석된 ‘통사적 구성의 주어’에 대해 ‘복합 주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탑출판사, 1993), 238쪽.
 저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또 있을까?
 ㄱ. [저렇게 아름다운]_{관형어} [물건이]_{주어} 또 있을까?
 ㄴ. [[저렇게 아름다운]_{관형어} 물건이]_{주어} 또 있을까?

지 않는다. 즉 다른 문장성분들과 달리, 서술어는 ‘서술어=1단어’인 경우를 위해 (3)~(6)처럼 별도의 용어나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¹²⁾

본고는 이와 같은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이유가 ‘서술어=1단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어/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들이 그러하듯,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가 하나의 단어로 제한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 ‘서술어≠동사/형용사’인 경우

다음 (7)은 안희돈(2000)에서 ‘X하다’, ‘A/V-기#보조사#하다’, ‘A/V-지 아니 하다’ 구문의 ‘하다’가 어떤 경우에 동사적인 ‘한다’ 활용형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7) ‘하다’의 동사적 활용형 ‘한다’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X하다’, ‘A/V-기#보조사#하다’, ‘A/V-지 아니 하다’에서) 시제/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주동사, 즉 동사 ‘하-’뿐이다. 본질적으로 동사 ‘하-’는 ① 선행하는 실질서술어(content predicate)로부터 상대성과 같은 상 자질을 인계받는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X하다’, ‘A/V-기#보조사#하다’, ‘A/V-지 아니 하다’에서) 동사 ‘하-’와 ② 선행하는 서술어(동사/형용사)는 반드시 동일한 시제/상의 자질을 공유한다.¹³⁾

그리고 다음 (8)은 안희돈(2000)에서 ‘영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라는 문장의 통사구조를 분석한 예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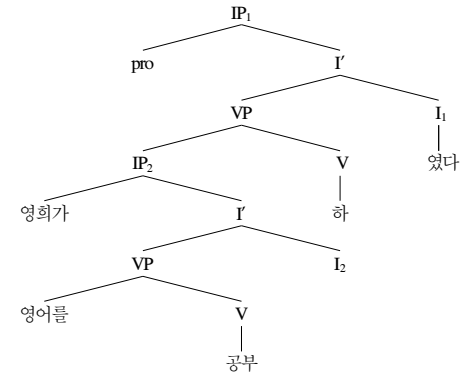
12) 이와 같은 비대칭성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1단어 |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 |
| 주어/목적어 | 용어 | 주어/목적어 | |
| | 범주 | 구 범주 NP | |
| 서술어 | 용어 | 서술어 | 복합 서술어 |
| | 범주 | 어휘범주 V | 재분석된 어휘범주 V 또는 준어휘범주 CP-V |

13) 안희돈,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구조 연구』(도서출판 경진문화사, 2000), 20-21쪽.

14) 위의 책, 30쪽.

(8) ‘영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의 통사구조 분석



(7)의 밑줄 친 ①에서 ‘실질 서술어’가 가리키는 것은, 문맥상 ‘하다’에 선행하는 X 및 어미 ‘-기, -지’와 결합한 동사/형용사를 의미한다. 안희돈(2000)에서는 ‘X하다’의 예문으로 ‘피곤하다, 기억하다’ 구문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¹⁵⁾ 여기서의 X는 ‘하다’에 선행하는 서술성 명사 ‘피곤, 기억’에 해당한다. 그러나 (7)의 ②에서는 ‘명사(=X)’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의 X(=명사)가 (8)에서는 동사(V) 절점에 위치하고 있다.¹⁶⁾ 즉 (8)은 ‘서술어≠동사’인 경우에 대해, 통사구조에서 ‘서술어=동사’로 분석한 것인데, 이것은 앞의 (5)~(6)에서 ‘서술어=1단어’인 경우에 대해, 통사구조에서 ‘서술어=1단어 (V/CP-V)’로 분석하려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위 ‘서술성 명사’들을 동사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인 ‘활용 가능성(또는 어미 결합 가능성)’을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 서술어에 대한 기존 정의

다음 (9)는 여러 논저에서 ‘서술어’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15) 안희돈, 앞의 책, 20쪽.

16) 이러한 처리는 서정수(1975)에서도 볼 수 있는데, ‘X하다’ 구문의 구조분석에서 이들 X(=명사)를 동사(V) 절점에 위치시키고 있다.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형설출판사, 1975), 71쪽.

(9)

- ㄱ. 풀이말(說明語)은 그 입자말 된 일문(事物)의 움직임과 바탈(성질)이 어머함과 또리 개념(類概念)의 무엇임과를 풀이하는 조각이니¹⁷⁾
- ㄴ. 서술어는 문장의 중심되는 성분으로, 주어인 <무엇이> 혹은 <누가>에 대해 해석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동작, 상태, 환언을 나타낸다.¹⁸⁾
- ㄷ.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서 그것이 ‘어찌한다’든가, ‘어떠하다’든가, ‘무엇이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을 이른다.¹⁹⁾
- ㄹ. 주어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말한다.²⁰⁾
- ㅁ.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및 성질을 서술한다.²¹⁾
- ㅂ. 서술어는 주어에 대하여 서술하는 성분이며, 서술의 내용은 속성이나 상태, 동작, 과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²²⁾

(9) ㄱ~ㅂ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서술어를 규정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① 하나는 서술어가 풀이/서술/설명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고, ② 또 하나는 그 풀이/서술/설명 기능이 ‘주어/입자말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①은 비록 동어반복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서술어를 규정하는 데에 ‘풀이/서술/설명’ 등 기능적 측면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동사/형용사’ 등 범주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②에서는 ‘주어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서술어가 주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②의 이러한 특징은 서술어에 대한 중요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성분이 서술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의 서술 기능을 확인하는

17) 최현배, 『우리말본』(정음문화사, 1961 제3판), 748~749쪽.

18)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민음사, 1992), 218쪽.

19) 남기섭·고영근, 앞의 책, 247쪽.

20) 임흥빈·이홍식(외), 앞의 책, 221~222쪽.

21) 이관규, 『학교문법론』(도서출판 월인, 2002 개정판), 230쪽.

22) 이홍식, 앞의 논문, 170~171쪽.

것뿐만 아니라 그 서술 대상이 되는 주어에 대한 확인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서술어와 주어라는 두 요소는 소위 ‘주술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이 관계가 몇 번 성립하는가 하는 것은, 그 문장이 단문인지 복문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서술어=1단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동사/형용사가 서술어이며, 또 그만큼의 주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동사/형용사가 쓰인 문장은 항상 복문으로 분석되고, 동사/형용사가 없는 문장은 동사/형용사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III장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몇 가지 구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보조용언 구문

1. 보조용언 구문에 대한 상반된 견해

다음 (10)~(11)은 서술어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서 보조용언 구문을 설명한 것이다. (10)은 ‘서술어=1단어’라는 입장이고, (11)은 ‘서술어>1단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

- ㄱ. 학교 문법에서는 본용언은 보조용언과 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각기 다른 서술어이다. 다만, 보조용언은 그 의미 특성이 본용언에 대하여 보조적인 의미를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다.²⁴⁾
- ㄴ. 그러나 최근의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복문을 이루는 것으로 기술하게 된다.…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독자적인 보어 성분과 주어 성분을 요구하게 된다. 주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일 뿐이다. 구조적으로 이들은 독자적으로 절을 형성한다.²⁵⁾

23) 일부 논의에서 ‘(-에) 대하여/대함, (-에) 관하여/관한’ 등을 조사 상당 구성으로 보는 것도, 이들 용언에 대한 적절한 주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24) 임흥빈·이홍식(외), 앞의 책, 222쪽.

(11)

- ㄱ. 앞에서는 지금까지 한 문장의 서술어는 한 개의 용언으로 성립하는 것처럼 얘기해 왔다. 그러나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어떤 동사가) 보조동사로 쓰일 때의 뜻만으로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으며, 항상 본동사와 어울려 한 덩어리의 서술어를 이룬다. …자리옮김을 할 때도 ‘찢어 버렸다’는 한 덩어리로 붙어 다닌다.²⁶⁾
- ㄴ. 62. 철수가 신문을 찢어 버리고 말았다.
63. 나는 그만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어 버리고 싶었다.
62에서는 2개의 보조동사가 쓰여서 본동사까지 모두 3개의 동사가 한 주어의 서술어가 되고 있으며, 63에서는 본동사와 3개의 보조동사 및 보조형용사가 쓰여 모두 4개의 용언이 한 덩어리의 서술어가 되고 있다.²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문/복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문장 내 주술관계의 성립 횟수이다. 따라서 (10)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이 복문으로 분석될 것이고, (11)에서는 단문으로 파악될 것이다. (10)~(11)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① 보조용언은 독자적인 서술어인가, ② 보조용언도 자신만의 주어를 가지는가.

2. 보조용언 구문 내의 부사절

보조용언 구문을 복문으로 파악하는 논의에서는, 보조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모문을 설정하고, 본용언에 의한 부사절이 여기에 내포된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기저에 둘 이상의 주어 자리를 설정하고,²⁸⁾ 그 중 하나만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 이홍식, 앞의 논문, 206~207쪽.
26) 남기심·고영근, 앞의 책, 253~255쪽.
27) 위의 책, 257쪽.
28) 이러한 분석에서는 문장 내 보조용언의 수에 따라 설정되는 주어의 수가 달라질 것이다.

(12)

- ㄱ. [고양이_i가 [[PRO_i 생선을 먹어]_S [버렸다]_V]_{VP}]_S²⁹⁾
- ㄴ. [[[철수가 [[e_i 기차를 타]_{CP} [보]_V]_{VP}있]_{TP}]_{CP}]³⁰⁾
- ㄷ. [[철수가 [[e_i 밥을 먹어]_S 버렸다]_V]_{VP}]_S³¹⁾

(12) ㄱ-ㄷ에는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 ‘(철수가) 기차를 타’, ‘(철수가) 밥을 먹어’ 등이 각각 하나의 절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절들은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이와 같이 보조용언 구문 안에서 본용언이 이끄는 부사절이 분석되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보조용언 구문을 복문으로 분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위 (12)를 단순화 하면 다음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3)

| | | | | |
|---------|---------|------------|-------------|----------|
| [<주어2> | [<주어1> | <(기타 성분들)> | <서술어1>]부사절 | <서술어2>] |
| | (비실현) | | 본용언 | 보조용언 |

그러나 보조용언 구문이 항상 (13)처럼 부사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과 같이 분석되려면, 먼저 본용언만을 서술어로 하여 문법적인 절이 분석되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즉 (13)의 내부괄호 안의 절이 문법적이어야 한다. 다음 (14)~(17)처럼 본용언만을 서술어로 해서는 문법적인 부사절이 분석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 (13)과 같은 복문 분석은 문제가 될 수 있다.³²⁾

(14) ‘V-아/어 지다’ 구문 : 논항 수 감소, 격조사 교체

- ㄱ. 페인트가 벽에 칠해 졌다. → [페인트가 [(페인트가) 벽에 칠해]_(x) 졌다].
- ㄴ. 보충설명이 덧붙여 졌다. → [보충설명이 [(보충설명이) 덧붙여]_(x) 졌다].

29) 김영희, 「의존 동사 구문의 통사 표상」. 『國語學』, 23(國語學會, 1993), 185쪽.
30) 任洪彬·張素媛, 『國語文法論 I』(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5), 325~327쪽.
31) 이선웅,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國語研究』, 133(國語研究會, 1995), 42쪽.
32) ‘V-아/어 지다, A-아/어 하다’ 중에는 이미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것도 있지만, (14)~(15)의 예에 사용된 ‘칠해 지다, 덧붙여 지다, 지루해 하다, 곤혹스러워 하다’ 등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이다.

- (15) ‘A-아/어 하다’ 구문 : 논항 수 증가, 격조사 교체
 ㄱ.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 한다. → [학생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 한다].
 ㄴ. 철수는 그 날 일을 곤혹스러워 한다. → [철수는 [(철수는) 그 날 일을 곤혹스러워](×) 한다].
- (16) ‘V-고 싶다’ 구문 : 격조사 교체(수의적)
 ㄱ. 나는 밥이 먹고 싶다. → [나는 [(나는) 밥이 먹고](×) 싶다].
 ㄴ. 나는 일본어가 배우고 싶다. → [나는 [(나는) 일본어가 배우고](×) 싶다].
- (17) ‘V-아/어 주다/드리다’ 구문 : 논항 수 증가
 ㄱ. 철수가 선생님께 선물을 사 드렸다. → [철수가 [(철수가) 선생님께 선물을 사](×) 드렸다].
 ㄴ. 나는 철수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 [나는 [(나는) 철수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일부 논의에서는 다음 (18)과 같이 보조용언 구문이 동사 포함이나 재구조화에 의해 ‘복문→단문’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 (18) 보조용언 구문에 대해 ‘복문→단문’ 과정을 가정하는 논의
 ㄱ. 포함에 의한 설명³³⁾
 ① 순이는 [[e [돌이를 만나]_{VP} 아]_{IP} 보]_{VP} 았다(포함 이전 : 복문)
 ② 순이는 [[돌이를 [만나 보]_V]_{VP} 았다(포함 이후 : 단문)
- ㄴ. 재구조화에 의한 설명³⁴⁾
 ① [_{VP}ⁱ·[_{CP}ⁱ·[_{IP}ⁱ·[_{VP}ⁱ]]](재구조화 이전 : 복문)
 ② [[_{VP}ⁱ, _{CP}ⁱ, _{IP}ⁱ, _{VP}ⁱ]](재구조화 이후 : 단문)

이러한 설명법은 결과적으로 ‘본용언-보조용언’을 한 단위로 만들고 (14)~(17)을 단문으로 봄으로써 논항/격과 관련된 문제, 즉 복문 구조에서 나타나는 부사절의 비문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단문화 적용 이전의 복문 구조가 (14)~(17)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법은 위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설명법은 결국 문법적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그 중간 단계에 비문법적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4)~(17)과 같은 구문에서 표면의 논항/격은 본용언이나 보조용언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다음 (14')~(17')처럼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여, 논항/격을 결정한다고 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18-1)②), (18-2)②)의 ‘단문화 이후’의 구조와 유사하다.³⁵⁾

- (14') ‘V-아/어 지다’ 구문
 ㄱ. 페인트가 벽에 [칠해 졌다].
 ㄴ. 보충설명이 [덧붙여 졌다].
- (15') ‘A-아/어 하다’ 구문
 ㄱ.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 한다].
 ㄴ. 철수는 그 날 일을 [곤혹스러워 한다].
- (16') ‘V-고 싶다’ 구문
 ㄱ. 나는 밥이 [먹고 싶다].
 ㄴ. 나는 일본어가 [배우고 싶다].
- (17') ‘V-아/어 주다/드리다’ 구문
 ㄱ. 철수가 선생님께 선물을 [사 드렸다].
 ㄴ. 나는 철수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렇다면 (12)의 보조용언 구문에서 표면의 논항/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본용언이 아니라 ‘본용언-보조용언’이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12)는 본용언에 의한 논항/격이나 ‘본용언-보조용언’에 의한 논항/격이 동일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단위’란 합성용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본용언-보

33) 엄정호, 「동사구 보문의 범위와 범주」, 『國語學』, 33(國語學會, 1999), 425쪽.

34) Choe, Hyon Sook, 「Restructuring In Korean」, 『語學研究』, 24-4(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1988), 532쪽.

35) 이와 같이 (14)~(17)의 문장을 단문화 이후의 구조 (14')~(17')로 바로 분석하면 논항/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고는 보조용언 구문에 단문화 이전/이후의 두 개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고, 단문화 이후 구조 하나만을 인정하고자 한다. 단 구체적인 범주표시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

조용언' 연쇄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통사론적 연쇄라는 점은 이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³⁶⁾ 본고는 이 연쇄가 (11)의 관점(서술어≥1단어)에서 본 '서술어'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3. 보조용언 구문의 주어

앞서 II장 3절에서는 서술어에 대한 기존 정의들을 검토하면서, 서술어는 주어틀 서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분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III장 2절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이 1서술어(='본용언-보조용언' 연쇄)인 단문으로 분석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본고의 견해로는 보조용언 구문이 하나의 서술어와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주어를 가진 구문으로 분석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본고의 견해는 앞의 (12)~(13)의 분석방법과 주어의 개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앞의 (12)~(13)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을 복문으로 보고, 여기에 둘 이상의 주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주어만 외현되며, 그 밖의 주어들은 외현되지 않는 공범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복문에서 생략될 수 있는 공범주 주어와 보조용언 구문에 대한 복문 분석에서 설정된 공범주 주어는 성격이 다른 듯하다. 일반적인 복문에서는 둘 이상의 주어가 동일 지시/동일 형태의 명사구라도 수의적으로나마 모두 외현될 수 있지만,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실제로 둘 이상의 주어가 동일 의미/동일 형태의 명사구로 외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문의 경우는

36) '본용언-보조용언'이 통사론적 연쇄라는 근거는, 합성용언과 달리, ①생산성이 높다는 점, ②본용언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③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점, ④본용언 뒤에 둘 이상의 보조용언들이 통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성용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물론 '본용언#보조용언'의 복합체가 합성용언과 유사한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고 제시된 예들도 있다. 그러나 이 예들은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한 단어라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 특히 보조용언의 의존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에 대해 통사론적으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용언의 분리/이동/생략 등의 현상에서는 보조용언이 합성용언의 V2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단지 합성용언의 V2와 보조용언 사이에는 전자가 형태론적 의존성을 가지는 데에 반해 후자가 통사론적 의존성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관형성분#의존명사' 구성에서도 의존명사의 통사론적 의존성으로 인해, 관형성분의 분리/이동/생략 등이 불가능하다.

표면에 하나의 주어만 외현되더라도 그 나머지 주어에 대해 그 존재를 가정하거나 통사구조에서의 공범주 자리를 설정하기가 용이하지만, 보조용언 구문에 대한 (12)~(13)의 복문 분석에 설정되어 있는 공범주 주어들은 그 실재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외현되지 않는 공범주 주어를 실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류시중(1996)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을 다음 (19)~(22)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³⁷⁾ 여기에는 보조용언 구문이 복문이며, 보조용언이 독자적인 서술어로서 자신만의 주어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① 보조용언의 주어는 어떤 성분인가, ② 보조용언의 주어는 표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 (19) 본용언과 주어와 보조용언의 주어가 동일한 구문 / 비실현
 가. 나는 철수가 보고 싶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다. 철수는 책상 위를 손으로 닦아 보았다.
- (20) 보조용언의 주어가 불명확한 구문 / 비실현
 철수는 그 책을 읽어 간다.
- (21) 본용언의 주어와 보조용언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은 구문 / 실현
 가. 철수는 영희가 책을 읽게 만들었다.
 나. 철수는 내일 눈이 올까 봐, 잠을 못 잤다.
 다. 나는 그 일이 무사히 끝났으면 싶다.
- (22) 보조용언의 주어는 화자지만 명시되지 않은 구문 / 비실현
 가. 철수가 집에 가나가가는가 보다/싶다
 나. 워낙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다. 그는 당분간 술을 끊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분류에 따르면 (19), (20), (22)는 표면에 하나의 주어밖에 나타날 수 없는 구문이고, (21)은 두 개의 주어가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이다. 그러나 (21)의 문장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들이 보조용언에 의한 구문인지, 또는 표면에 나타난 두 개의 주어 중 하나가 보조용언의 주어로서 나타난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

37) 류시중, 「보조용언의 원형적 특성」, 『한글』, 234(한글학회, 1996), 109~111쪽.

가 있을 듯하다.

우선 (21)ㄷ은 내적발화 인용구문으로 다음 (23)ㄱ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⁸⁾ 또 이 구문의 ‘싶다’는 용언에 후행하지 않아도, 동일한 의미/기능으로 (23)ㄴ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조용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3)

- ㄱ. 나는 (‘)그 일이 무사히 끝났으면(...)’ 싶다.
 ㄴ. 나는 (‘)혹시나/설마(...)’ 싶었다.

(21)ㄴ의 ‘철수는’은 후행절 ‘잠을 못 잤다’의 주어일 뿐 보조용언 ‘보다(봐)’의 주어는 아닌 듯하며, 다음 (24)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여겨진다.

(24) 철수는, 내일 눈이 올까 봐, 잠을 못 잤다.

마지막으로 (21)ㄱ의 사동 표현은 보조용언 구문이라기보다는 부사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복문인 듯하다. 보조용언은 일반적으로 ‘표면상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선행하는 어휘적 성분’으로 용언을 요구하는 제약이 있는데,³⁹⁾ 다음 (25)~(26)과 같이 사동의 ‘하다, 만들다’ 등은 이러한 제약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25) 먹쇠가 집에 가게 했다.

- ㄱ. 먹쇠가 집에 가게 안 했다.
 ㄴ. 먹쇠가 집에 가게 나는 했다.⁴¹⁾

38) 손세모들(1996), 박재연(1999)에서도 이러한 용법의 ‘싶다’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손세모들, 『국어 보조용언 연구』(한국문화사, 1996), 90~97쪽, 박재연, 『중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구문에 대한 재검토』, 『冠岳語文研究』, 24(서울대학교 國語國文學科, 1999), 155~182쪽.

39) 이 제약에 의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보조사는 개입할 수 있지만, 부사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0) 이선웅(1995)에서도 이를 근거로 사동의 ‘(-게) 하다’는 보조용언에서 제외하였다. 이선웅, 앞의 논문, 31쪽.

41) 이선웅, 앞의 논문, 21쪽.

(26) 철수는 영희가 책을 읽게 만들었다.

- ㄱ. 철수는 영희가 책을 읽게 안 만들었다.
 ㄴ. 영희가 책을 읽게 철수가 만들었다.

이와 같이 (21)의 구문을 재분류하고 나면,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 구문에서 실제로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2)에서는 ‘고양이가/철수가’가 본용언 ‘먹어/타’뿐만 아니라 보조용언 ‘버렸다/보았다’의 주어로도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왜 ‘고양이가/철수가’가 보조용언 ‘버렸다/보았다’의 주어로도 분석되는지, 또 그 전에 왜 보조용언 ‘버렸다/보았다’에도 주어가 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이 제시된 것은 없는 듯하다.

任洪彬·張素媛(1995)에서는 앞의 (12)ㄴ에서 두 개의 주어를 설정하는 이유로, ‘철수가 자기가 기차를 타 보았다.’처럼 두 개의 주어가 외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²⁾ 그러나 재귀대명사에 의해 주어가 하나 더 출현하는 예는 보조용언 구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예: 철수가 자기가 (직접) 기차를 탔다).

류시중(1996)에서는 보조용언 ‘(-어) 주다’, ‘(-어) 보다’ 구문의 주어가 항상 유정명사라는 점을 근거로, 이 주어는 본용언의 주어이면서 보조용언의 주어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⁴³⁾ 그러나 이것은 보조용언이 주어를 가지며, 그 주어에 ‘[+유정성]’이라는 선택제약을 부과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것은 보조용언의 주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본용언과 관련된 문제인 듯하다. 즉 보조용언 ‘주다, 보다’가 ‘유정명사를 외부논항으로 하는 동사를 본용언으로 한다’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⁴⁾

(12)에서 ‘고양이/철수’는 보조용언 ‘버렸다/보았다’가 의미하는 ‘완료/시도’라는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라는 개념이 ‘주어’라는 문장성분에 항상 그대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또 주체 개념으로 주어를 설정하는 것은, 설명 대상이 되는 ‘언어1’과 그것을 설명하는(또는 그것과 환연관계를 가지는) ‘언어2’ 간의 층위 구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42) 任洪彬·張素媛, 앞의 책, 326쪽.

43) 류시중, 앞의 논문, 110쪽.

44) 보조용언이 선행용언에 대해 가지는 선택제약의 다른 예로, 보조용언 ‘내다’의 경우는 선행용언으로 타동사를 선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체 개념으로 주어 설정할 수 없는 예로서, ‘내일쯤 철수가 오겠다’와 같이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된 문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겠-’이 의미하는 ‘추측’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화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겠-’의 행위주체인 ‘화자’를 위해 외현되지 않은 또 하나의 주어를 설정하지 않는다.⁴⁵⁾

그 이유는 이것이 언어2의 ‘추측(하다)’의 주어일 뿐, 언어1의 ‘-겠-’의 주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2)에서도 ‘고양이/철수’는 단지 언어2의 ‘완료/시도(하다)’의 주어일 뿐, 언어1의 ‘버렸다/보았다’의 주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문 구조에서 설정된 공범주 주어는 그 실재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위 (12)에서 본용언/보조용언의 주어가 각각 따로 설정된 것은, 보조용언 구문이 ‘서술어=용언(동사/형용사)’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보조용언도 용언의 일종이므로 서술어가 되어야 하고, 서술어라면 당연히 주어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술어>1단어’도 가능하다는 관점, 즉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본용언-보조용언’ 연쇄가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조용언은 서술어의 일부일 뿐 독자적인 서술어는 아닌 성분이 된다. 따라서 보조용언만의 독자적인 주어가 따로 설정될 필요도 없어진다. 주어는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와 관련된 성분이지, 동사/형용사라는 범주적 단위와 관련된 성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조용언 구문에서 1개의 주어만이 외현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 구문을 복문으로 분석하는 구조에서는 앞에서처럼 둘 이상의 주어가 있었지만 동일지시/생략 등을 통해 하나의 주어만 외현되는 것으로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보조용언 구문을 1서술어(>1단어)의 단문으로 보면, 보조용언 구문의 주어는 여러 개 중 하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서술어의 단문에서 원래 하나밖에 없던 주어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보조용언이 둘 이상 있는 구문에서도 하나의 주어만 외현되는 현상을 훨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45) 이 점은 앞서 제시한 (22)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복문, 보조용언 구문, 합성용언 구문

보조용언 구문의 이중성과 관련된 문제, 즉 보조용언 구문은 단문인가 복문인가,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연속체는 한 단어인가, 통사론적 연쇄인가 하는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위의 문제가 보조용언 구문을 ‘서술어=1단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서술어=1단어’의 관점에서는 ‘본용언#보조용언’의 복합체가 통사론적 연쇄(2단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보조용언 구문이 복문(2서술어)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통사론적 현상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이 오히려 단문의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점에서, 보조용언 구문의 단문/복문 판단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⁴⁶⁾

이러한 문제는 (11)처럼 ‘서술어>1단어’도 가능하다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⁴⁷⁾ 본고는 ‘서술어≥1단어’의 관점에서 보조용언 구문을 다음과 같이 보고자 한다. ①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통사론적 연쇄 ‘본용언#보조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한다. ② 보조용언 구문은 하나의 서술어가 쓰인 단문이다.⁴⁸⁾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점에서는 복문 분석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46)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함, 재구조화 등을 통해 ‘복문→단문’의 과정을 가정하는 논의들이 있었다. 한편 김영희(2000)에서는 ①‘내포문 주어→모문 목적어’ 인상 현상, ②내포문 성분이 분열문의 초점이나 의문의 초점이 되는 현상, ③내포문의 부정극어로 인해 모문에 부정어가 나타나는 현상 등이 가능한 일부 복문은, 내포문의 경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단문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희(2000)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보조용언 구문도 위 ②·③의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포문의 경계가 투명한 복문이 될 것이다. ‘경계의 투명성’에 의한 효과는 ‘복문→단문’의 과정을 가정하는 포함, 재구조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영희, 앞의 논문, 157~188쪽.

47) 본고는 앞서 II장 1절에서 ‘서술어=1단어’라고 보는 관점의 용어상분석상의 비대칭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술어>1단어’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복합 서술어’와 같은 용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48) 손세모들(1996)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을 단문으로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통사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보조용언은 AUX로서 S'를 자매항으로 취해 S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III철수가 [발을 먹어]V]vs [버렸다]AUX]s”(손세모들, 앞의 책, 110쪽). 이 분석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① 용언 중에서 유독 보조용언만은 왜 동사(V)/형용사(A)가 아니라 AUX로 따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즉 ‘범주’ 표지를 정하는 데에, 왜 활용이라는 ‘범주적인 특징’보다 문법적 의미라는 ‘의미적인 특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② 보조용언은 선어말어미와 동일한 범주인가. ③ 왜 단문 안에 두 개의 S가 존재하는가. ④ 만약 선어말어미도 AUX라면, 선어말어미도 S'를 취해 S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등.

용사'의 범주적 특성으로 제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2. '명사#용언' 서술어 구문

(30)과 같은 형식이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다음 (31)과 같이 서술성 명사 'X(을/를)'과 '하다'로 이뤄진 문장의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⁵²⁾ 이것은 앞의 (30)과 관련이 있다.

(31)

- ㄱ. 영희가[주어/행동주] 영어를[목적어/대상] 공부(를)[?/?] 한다.
- 나. 경찰이[주어/행동주] 검문소에서[부사어/장소] 탈영병을[목적어/대상] 체포(를)[?/?] 했다.
- 다. 참가자들이[주어/행동주] 서울역에서[부사어/장소] 집합(을)[?/?] 했다.
- 르. 교장선생님이[주어/행동주] 철수에게[부사어/수혜자] 상장을[목적어/대상] 수여(를)[?/?] 했다.
- 미. 실종자 1명이[주어/경험주] 사망(을)[?/?] 했다

(31)의 표면에 실현된 논항/격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장에서 '하다'만을 서술어로 보게 되면, '하다'의 논항/격 구조(내지 '하다'의 구문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앞서 인용한 (3)~(6)에서도 'X(을/를)#하다'를 한

52) 이 구문의 '공부/체포/집합/수여/사망' 등 X에 결합한 '을/를'에 대해, 임흥빈(1979/1998)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고 분석하였다[임흥빈, 「용언의 어근분리현상에 대하여」, 『언어』, 4-2(한국언어학회, 1979), 55-76쪽]. 그러나 임흥빈·이홍식(외)(2002)에서는 앞의 (6)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목적격 조사로 보고 있다[임흥빈·이홍식(외), 앞의 책(2002), 227쪽]. 본고는 전자의 처리에 동의한다. 따라서 '영희는 영어를 공부할 한다'의 밑줄 친 '를'은 '순이는 돌이를 만나를 보았다'의 밑줄 친 '를'과 동일한 것이며, '만나를'이 '보았다'의 목적어가 아니듯, '공부할'도 '한다'의 목적어는 아니라고 본다. 단 위 예문에서 '영어'가 빠진 '영희는 공부를 한다'에서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며, 이때의 '공부'는 '한다'의 목적어이다. 이에 대해 安熙濟(2007)에서는 동사적 '하다'를 둘로 나누고, '영희는 영어를 공부할 한다'의 '하다'는 독자적인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없는 성분으로, '영희는 공부를 한다'의 '하다'는 타동사적으로 쓰여 독자적인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으로 구분하였다. 安熙濟, 「X하다' 동사의 구문구조에 대하여」, 『語文研究』, 136(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7), 144~149쪽.

단위로 하여 분석했듯이, (31)의 표면에 나타난 논항/격을 '하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도 'X(을/를)#하다'가 한 단위를 이룬다는 (3)~(6)의 인식에 동의한다. 이 단위는 앞의 (3)~(4)의 '복합 서술어' 논의에서도 '서술어'라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는 '서술어≥1단어'라는 입장에서, 통사적 구성의 'X(을/를)#하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3)~(4)의 견해를 수용한다. 따라서 위 (31)을 다음 (32)~(33)과 같은 1서술어의 단문으로 분석한다.⁵³⁾

(32)

- ㄱ. 영희는[주어] 영어를[목적어] 공부(를) 한다[서술어].
- 나. 경찰이[주어] 검문소에서[부사어] 탈영병을[목적어] 체포(를) 했다[서술어].
- 다. 참가자들이[주어] 서울역에서[부사어] 집합(을) 했다[서술어].
- 르. 교장선생님이[주어] 철수에게[부사어] 상장을[목적어] 수여(를) 했다[서술어].
- 미. 실종자 1명이[주어] 사망(을) 했다[서술어].

(33)

[<주어> <(기타 성분들)> <서술어>]
X(을/를)#하다

그러나 앞의 II장 1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X(을/를)#하다'라는 '통사적' 구성의 '기능적' 단위가, (5)~(6)처럼 동사(V)라는 '어휘적/범주적' 단위로 (재)분석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34)는 앞의 (30)비에 '이다'를 보충해 넣은 것이다.

(34) 우리는 조국의 방패이다.

'이다' 구문의 서술어는 '이다'로 설명되기도 하는데,⁵⁴⁾ 이 경우 '이다'는 주어

53) 본고는 'X(을/를)#하다'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의 (8)보다는 (5)~(6)과 입장을 같이 한다.

54) 임흥빈·이홍식 외(2002)에서는 '이다' 구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라.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구 NP1과 ‘이다’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 NP2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기술된다. 그러나 다음 (35)의 ‘이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 기술되기 어렵다. 특히 (35)의 밑줄 친 성분들은 논항의 성격이나 격이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 (35)에서 주어를 제외한 ‘이 수업에 (항상) 지각, 북으로 전진, 철수와 친구’를 NP2에 해당하는 하나의 명사구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5)

- ㄱ. 저 높은 이 수업에 항상 지각이야.
- ㄴ. 우리는 북으로 전진이다.
- ㄷ. 나는 철수와 친구(이)다.

IV장 2절에서는 (31)에서 ‘하다’만을 서술어로 보면, ‘하다’의 논항/격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34)~(35)에서도 ‘이다’만을 서술어로 보면, 위와 동일한 문제가 ‘이다’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31)에서 ‘X(을/를)#하다’를 서술어로 본 것처럼, ‘이다’ 구문에서는 ‘서술어≥1단어’의 관점에서 ‘NP2#이다’가 서술어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3. 명사 서술어 구문

1) 서술성 명사가 서술어인 문장

다음과 같이 (32)에서 ‘X(을/를)’가 제거된 (36)은 모두 비문이 된다. IV장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것은 (32)의 ‘하다’가 독자적으로는 서술어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6)

- ㄱ. *영회는 영어를 한다.

용언 외에 명사도 ‘이·와’ 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명사는 서술어를 이루지 못한다. ‘나는 학생이다’는 지정 형용사 ‘이·의’의 구성이다.” 임흥빈·이홍식(외), 앞의 책 (2002), 222쪽.

- ㄴ. *경찰이 검문소에서 탈영병을 했다.
- ㄷ. *참가자들이 서울역에서 했다.
- ㄹ. *교장선생님이 철수에게 상장을 했다.
- ㅁ. *실종자 1명이 했다.

그러나 위 (32)에서 ‘하다’를 제거한 다음 (37)에서는 (32)의 논항명사와 격조사가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37)이 (29)의 설명대로 ‘하다’의 생략으로 형성된 구문인가 하는 것이다.

(37)

- ㄱ. 영회는 영어를 공부.
- ㄴ. 경찰이 검문소에서 탈영병을 체포.
- ㄷ. 참가자들이 서울역에서 집합.
- ㄹ. 교장선생님이 철수에게 상장을 수여.
- ㅁ. 실종자 1명이 사망.

(37)에는 논항명사와 격조사, 그리고 서술성 명사 X만이 나타나 있다. 安熙濟(2007)에서는 주어를 포함한 (37) 표면의 모든 논항명사와 격조사의 출현이 X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다’의 생략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형식에는 명사 X가 서술어로 기능하여 그 자체로 주술관계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족적인 ‘문장’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명사문’이라고 명명하였다.⁵⁵⁾ 본고에서도 이 견해를 유지한다.

55) 安熙濟(2007)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安熙濟, 앞의 논문, 138-144쪽.

- ① 교장선생님이 철수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 ② 교장선생님의 철수에게의 상장(의) 수여 (*함)
- ③ 교장선생님이 철수에게 상장을 수여
- ㄱ. ②의 명사구에는 ‘하다’의 생략을 가정할 수 없다.
- ㄴ. ①②에는 동일한 논항명사구가 실현되어 있다.
⇒ (②는 ‘하다’의 생략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②의 논항명사구의 실현은 서술성 명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ㄷ. ②의 조사 ‘에게’는 이것을 한 단위로 보지 않는 이상, ‘에게#’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에게’는 ①의 ‘에게’와 다른 것일 수 없다.

(37)에서 X가 서술어라는 점은 다음 (38)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명사 X가 만약 서술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 즉 다른 서술어의 논항으로 쓰인다면, X는 ‘명사구’의 핵이 되고 X의 논항/격은 다음 (38)과 같이 모두 관형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⁵⁶⁾ 이와 달리 X의 논항들이 (37)처럼 주격/목적격/부사격 등을 가지고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X가 다른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8)

- ㄱ. 너는 영희의 영어 공부를 철저히 감시해라.(목적어)
- 나. 경찰의 검문소에서 탈영병 체포가 예상보다 지연되었다.(주어)
- 다. 참가자들의 서울역에서의 집합에 주변이 많이 혼잡했었다.(부사어)
- 르. 교장선생님의 철수에게 상장을 수여가 끝나자마자 모두 박수를 쳤다.(주어)
- 미. 실종자 1명의 사망으로 총 사망자는 10명이 되었다.(부사어)

(38')

- ㄱ. *너는 영희가 영어를 공부를 철저히 감시해라.(목적어)
- 나. *경찰이 검문소에서 탈영병을 체포가 예상보다 지연되었다.(주어)
- 다. *참가자들이 서울역에서 집합에 주변이 많이 혼잡했었다.(부사어)
- 르. *교장선생님이 철수에게 상장을 수여가 끝나자마자 모두 박수를 쳤다.(주어)
- 미. *실종자 1명이 사망으로 총 사망자는 10명이 되었다.(부사어)

⇒ ②의 ‘에게’도 ①과 동일한 부사격 조사이며, ②의 ‘에게’의 실현 역시 서술성 명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ㄱ. 그러나 ②에는 주격/목적격 조사 ‘이/가, 을/를’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의 ‘교장선생님, 상장’도 서술성 명사에 의해 주격/목적격이 부여되었으나, 조사 ‘이/가, 을/를’은 ‘의’와의 결합 제약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 ㄴ. ②의 논항격, 즉 명사구들과 ‘의’를 제외한 조사들은 ‘하다’의 생략을 가정하지 않고도 모두 서술성 명사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ㄷ. 따라서 ②와 동일한 논항/격이 실현되어 있는 ③에 대해서도, ③을 구성하고 있는 논항 명사구, 조사, 서술성 명사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성분의 생략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 ③은 그 자체로 자족적인 단위이며, ③에서는 X가 논항 명사구들을 요구하고 여기에 주격/목적격/부사격 등을 부여한다. 따라서 ③은 X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56) 물론 실제 문장에서 (38)의 모든 논항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8)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은 ‘X(을/를)#하다’ 구문을 복문으로 분석하고, X에 의한 내포문 IP2와 ‘하다’에 의한 모문 IP1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포문에 해당하는 IP2만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 (39)와 같다.⁵⁷⁾ (37)과 같은 형태가 하나의 문장((8)에서는 IP에 해당)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39) [영희가 영어를 공부]IP2

(37), (39)와 같은 형식이 ‘문장’이라면, 여기서는 서술성 명사 X가 서술어로 기능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안희돈(2000)에서도 이 X가 서술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앞서 (7)의 ①에서 확인한 바 있다. 단지 2.2에서는 (8)에서 X를 동사(V)로 분석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이러한 처리는 ‘서술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비서술성 명사가 서술어인 문장

(30)비에서는 ‘이다’가 없어도 ‘우리는’이라는 논항/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35)에서 ‘이다’가 제거된 다음 (40)도 마찬가지이다.

(40)

- ㄱ. 저 놈은 이 수업에 항상 지각.
- 나. 우리는 북으로 전진.
- 다. 나는 철수와 친구.

(30)비, (40)은 표면에 용언이 없어도 논항명사들이 주어/부사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37)의 경우와 유사하다. (37)에 대해 본고는 ‘하다’의 생략을 가정하지 않고, 이들을 ‘X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57) 본고가 (32)를 단문(서술어=X(을/를)#하다)으로 본다는 점은 IV장 2절에서 밝힌 바 있다. 단지 여기서는 (8)의 분석에서 (37), (39)와 같은 형식이 하나의 문장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기 위해 다시 인용한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본고는 (30)ㄴ, (40)에 대해서도 ‘이다’의 생략을 가정하지 않고, 이들을 ‘NP2(조국의 방패, 지각, 전진, 친구)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으로 보고자 한다.⁵⁸⁾

이러한 처리에는 (30)ㄴ의 NP2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37)이나 (40)은 X/NP2의 논항구조로 인해 X/NP2가 서술어로 쓰여도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의 출현을 보장할 수 있지만, (30)ㄴ의 NP2처럼 논항구조가 없는 성분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ㄴ와 같은 구문(논항구조가 없는 NP2가 서술어인 구문)에서는 주어 논항 하나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항구조가 없는 성분이 서술어로 쓰여도, 주어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서술어의 특성상(2.3), 주어의 출현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V. 서술어의 역할: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

일반적으로 문장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은 용언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3~4장에서 보조용언 구문/‘X(을/를)#하다’ 구문/‘명사구#이다’ 구문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은 각각 ‘본용언#보조용언’/‘X(을/를)#하다’/‘명사구#이다’의 복합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복합체들은 ‘서술어≥1단어’의 관점에서 본 서술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30)ㄴ, (37), (40)과 같은 문장에서도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은 서술어로 쓰인 명사(NP2, X)라고 보았다. 즉 지금까지 본고는 문장 표면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이, ‘용언(동사/형용사)’이라는 범주적 단위가

58) 본고는 (37)에서나 (30)ㄴ에서나 ‘생략’이라는 과정을 가정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난 형식을 중요시한다. 본고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에서 X는 서술성 명사를, NP는 비서술성 명사를 나타낸다.

| 구문유형 | 서술어 | 문장유형 |
|----------------|-----------|------|
| ‘본용언#보조용언’ 구문 | 본용언#보조용언 | 단문 |
| ‘본용언’ 구문 | 본용언 | |
| ‘X(을/를)#하다’ 구문 | X(을/를)#하다 | |
| ‘X’ 구문 | X | |
| ‘NP2#이다’ 구문 | NP2#이다 | |
| ‘NP2’ 구문 | NP2 | |

아니라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라고 보아 온 셈이다.

다음 (41)은 앞의 (12)에서 보조용언을 제거한 것이다. 본고는 (41)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도 범주적 단위인 ‘동사’로서의 ‘먹었다/탔다’가 아니라, 기능적 단위인 ‘서술어’로서의 ‘먹었다/탔다’라고 본다.⁵⁹⁾

- (41)
- ㄱ. 고양이가 생선을 먹었다.
 - ㄴ. 철수가 기차를 탔다.
 - ㄷ.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러나 서술어가 문장 표면의 논항/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동사/형용사가 논항/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41)처럼 1개의 동사/형용사가 1개의 서술어로 쓰인 경우, 동사/형용사가 가진 논항/격 구조는 그대로 표면에 실현될 것이다. 즉 (41)에서는 1개의 동사/형용사가 독자적으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형용사의 논항/격 구조는 표면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또 (12)처럼 서술어 내 다른 성분(보조용언)이 동사/형용사(본용언)의 논항/격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에도, 동사/형용사(본용언)의 논항/격 구조는 그대로 표면에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14)~(17)과 같이 서술어 내 다른 성분(보조용언)이 동사/형용사(본용언)의 논항/격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서술어 안에서 변화를 거친 논항/격 구조가 표면에 실현되는 것이다.⁶⁰⁾

서술어를 이와 같이 보면, 서술어 내부의 명사는 무슨 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다’ 구문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59) (41)과 같은 ‘1서술어=1단어(=동사/형용사)’의 문장에서는,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이 용언이라고 하든 서술어라고 하든 큰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문장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이 용언이라고 이해되어 온 것은, 주로 이런 문장을 분석하면서, ‘서술어=동사/형용사’라는 인식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0) 이와 같이 서술어가 문장 표면의 논항/격을 결정한다고 보면, 논항/격의 ‘실현’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가 문장 표면의 논항/격을 결정한다고 보면, (14)~(17)과 같은 구문에서 본용언에 의한 논항/격의 실현이 한 번 일어난 후에 다시 보조용언에 의해 전체적/부분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다’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NP2)의 격은 무엇인가 또는 왜 이 명사구에는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있었다. 본고의 관점에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항/격을 결정하는 성분이 서술어라면, 격을 부여받는 성분은 서술어 외부의 성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P2#이다’를 서술어로 보면, ‘이다’에 선행하는 NP2는 서술어 내부의 성분이기 때문에 격을 받을 수도 없고 격조 사도 결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⁶¹⁾

또 (32)에서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된 ‘X(을/를)#하다’의 X도 마찬가지이다. 임흥빈(1979/1998)에서는 이 X에 결합한 ‘을/를’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수용하면 (32)의 X는 보조사와는 결합할 수 있지만 ‘이/가, 예, 으/로’ 등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2)의 X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현상도, 이 X가 ‘X(을/를)#하다’라는 서술어 내부의 성분이라서 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VI. 결론

품사는 단어의 범주이고 문장성분은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서술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은 어떤 단어의 범주만으로도 그 단어의 문장 내 기능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단어의 품사는 범주적 특징에 의해 고유하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는 그것이 쓰인 문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범주적 단위인 ‘동사/형용사’가 아니라, 기능적 단위인 ‘서술어’가 문장의 논항/격을 결정한다는 주장, 명사나 통사론적 복합체도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2장에서 문제 삼았던 여러 논의에서도 본고와 유사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서술어’와 관련된 위 (3)~(6)은,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를 그 구문의 핵심 성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입장을 같이한다. 단지 본고가 문제를

61) 이것은 ‘명사구#답다’ 구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명사구#답다’를 하나의 서술어(>1단어)로 보면 이 명사구는 서술어 내부 성분이기 때문에 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기했던 것은,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를 ‘복합’ 서술어라고 한 점, 이 서술어를 통사구조에서 하나의 어휘적 단위로 분석하려 한 점이었다. 여기서 본고는 ‘복합’이라는 불필요한(또는 비대칭적인) 용어를 제거하고, 통사구조에서도 이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이라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

또 (7)~(8)에서는 X가 서술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것이 문장(8)의 IP2]을 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인정하였다. 본고는 단지 통사구조에서 동사(V)로 분석되어 있는 X를 그대로 명사(N)라고 보고자 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본고는 지금까지 ‘서술어=1단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분석들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부정하면서, ‘서술어≠1단어’인 경우도 존재하며 ‘서술어≠동사/형용사’인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결국 ‘서술어=1단어=동사/형용사’의 관점에서 특수하게 분석된 II장 (3)~(8)의 ‘V’라는 범주적 단위들을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로 되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의 논의대로라면, 범주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 간에는 분명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범주만을 이용해 문장을 분석하는 생성문법의 방법론에서는,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1992.
 김영희, 「의존 동사 구문의 통사 표상」. 『國語學』 23, 國語學會, 1993, 159~190쪽.
 김영희, 「보조절의 투명성과 불투명성」. 『한글』 250, 한글학회, 2000, 157~188쪽.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塔出版社, 1993 개정판.
 류세종, 「보조용언의 원형적 특성」. 『한글』 234, 한글학회, 1996, 105~132쪽.
 박계연,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구문에 대한 재검토」. 『冠岳語文研究』 24,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9, 155~182쪽.
 손세모들,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6.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 서울: 형설출판사, 1975.

